

월간 내일

Step up
다같이 노력해요!

청년 빛 내 는 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류서진, 유서현 님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내일로 붙업

설레는 꿈으로 다이빙

날마다 레벨업

직장인의 랜선 사수

청춘을 응원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세상 그 무엇이랴도 금세 녹여버릴 것처럼
한낮의 태양은 뜨거운 기운 가득이지만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당신을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월간 내일

청춘을
응원합니다.

Contents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청년 취업을 응원합니다
- 10 **트렌드 인사이드**
청년들 내 일(JOB)에 희망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 16 **알아두자고용**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전성시대
- 18 **내일이 만난 사람**
힘난한 청년 취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성공!
-숙명여대 류서진, 유서현 님
- 24 **정책모음, ZIP**
청년들의 일할 기회 늘리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정책들





Chapter 2 내일로 붙임!

- 34 굿&굿 오피스**
시스템, 문화 그리고
사람의 콜라보레이션
-브레인콜라
- 38 뉴 스타트**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선물한
희망이 깃든 미래
-박세정 조리실무원
- 42 더불어 세상**
웨딩카를 운전하는
은발의 노신사들
-더쇼퍼
- 46 청년꿈터**
설레는 꿈으로의 다이빙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배소은 씨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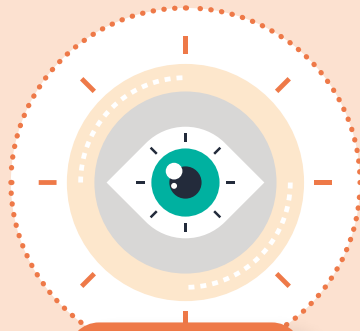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드라마 <클리닝 업>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툰**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휴먼**
금융뉴스를 이해하는 용어
- 70 주말에 뭐 할래?**
광복절 맛이 역사 큐레이션
- 74 직장인생활백서**
직장인의 랜선을 사수하라!
유용한 콘텐츠 플랫폼 추천
- 76 채널 MOEL**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소개
- 78 그린 리추얼**
누구나 손 쉽게 할 수 있는
음식물 덜어먹기 챌린지!
-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7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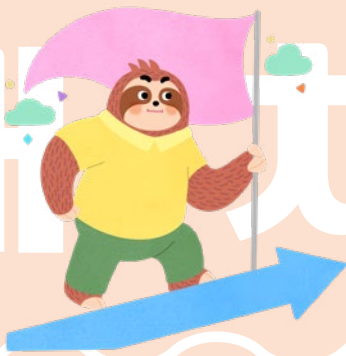
Chapter 1



트 렌 드



캐 치 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청년 일자리 지원이 청년의 희망이길

청년들의 30%는 취업보다 공무원을 준비하고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취업준비로 인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취업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정부 및 기업 등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찬찬히 한 번 살펴볼까요?

청년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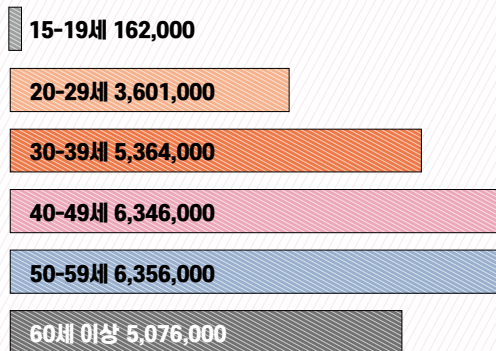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 전체가
공공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만 15세~만 39세 사이의
청년 취업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취업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하반기 취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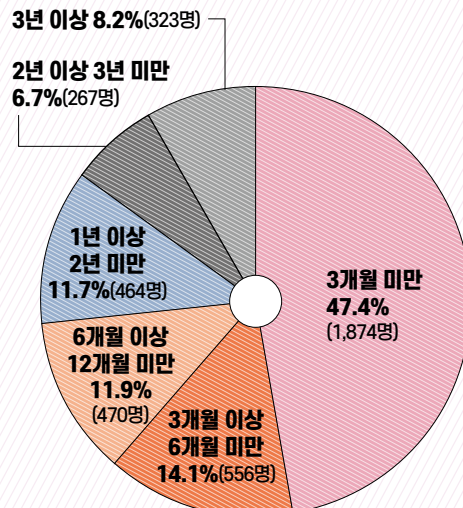
연령별 취업자 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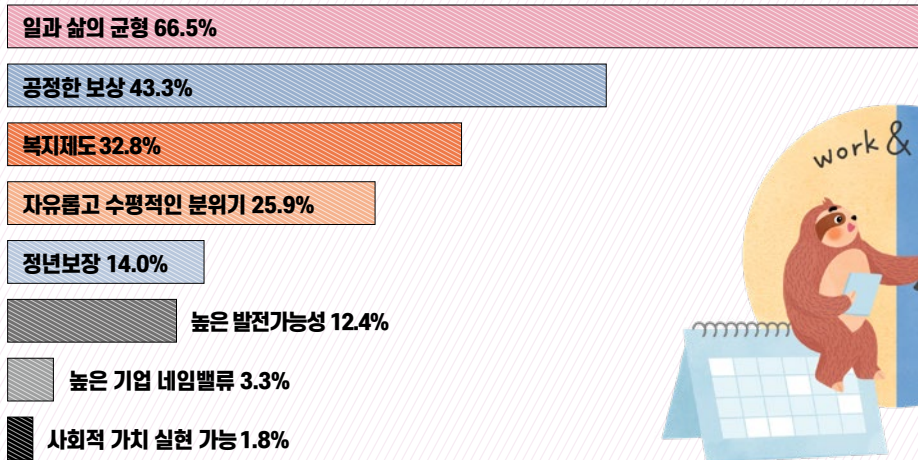
최종학교 졸업(중퇴) 첫 취업 소요시간

(통계청, 2021년, 15~34세 4,0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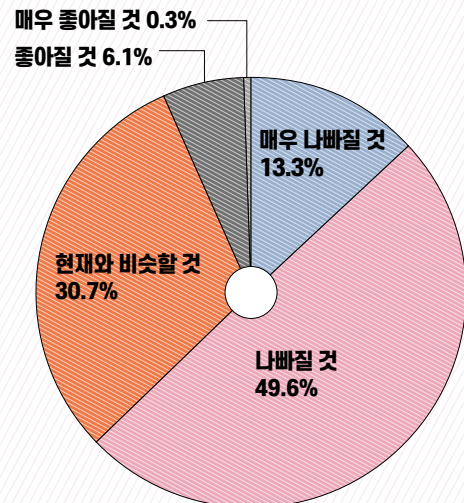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복수응답, 20-39세 1,000명)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20대 542명)



청년들 내일(JOB)에 희망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최근 대통령은 국정약속에 기반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국가와 지자체, 기업, 대학에서 머리를 맞대고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 지원은 올해 하반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청년 일자리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경쟁까지 치열해지다 보니 '나만 뒤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청년들의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생겨났거나, 청년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깨닫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기업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이 정도는 되어야 괜찮은 일자리!

청년들의 55.7%가 좋은 일자리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 그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조건은 어떠한 것들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판단 기준 1위를 차지한 것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봉 3,000만 원이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연봉은 적어도 그만큼 개인의 시간적 여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과 수평적인 조직, 복지제도가 그 뒤를 이었고요. 소수 의견으로는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쾌적한 근무 환경 등이 있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다소 다른 느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 일치하나요?

좋은 일자리, 판단 기준은 결국 기업 정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을까요?

취업사이트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지인을 통해서 얻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최근 기업 평점, 리뷰사이트가 유행하는 이유는 누구나 아는 정보 대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혹은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들은 기업들이 공개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기업이 공개하고 싶은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리뷰사이트 역시 부정적인 내용만 있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 정보들을 믿기보다는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플래닛

국내 구직사이트 중 가장 유명한 곳으로 가장 많은 리뷰가 등록되어 있고, 결제, 리뷰 작성 등을 해야만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잡

크레딧잡의 리뷰는 가입하지 않아도 리뷰를 쓸 수 있어 장점이자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즉,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인

구직사이트이지만 채용정보와 함께 기업 면접 후기 및 근무 환경, 복지 등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정부, 대학, 기업 등은 청년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청년구직난을 겪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청년고용촉진법'을 통해 청년들이 본인의 능력을 개발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단순히 구직률 지표만을 올리기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청년 공감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청년 취업은 늘어날까?

청년 60% 이상이 향후 일자리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자리 전문가들은 4차 산업, 메타버스 등 IT 관련 신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 포스코, 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일자리 수요자인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고,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무조건적 일자리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취업 정책, 일자리는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애써 청년들의 마음에 남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전성시대

한 조사에서 취업을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청년의 비율이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취득하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소개해드립니다.



AWS 인증 클라우드 실무자

- ✓ AWS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
- ✓ 클라우드 실무 기초 자격증
- ✓ 6개월의 AWS 클라우드 경험,
AWS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IT서비스 기본적인 이해 등,
AWS플랫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 응시 가능
- ✓ 단, 취득하려면 AWS Certified
Cloud Practitioner 시험
(CLF-C01)에 응시 후 합격해야 함

AWS 공인 솔루션 아키텍트

- ✓ AWS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
- ✓ 3년간 인증 유효, 재시험 통해
자격증 갱신(50%바우처 사용 가능)
- ✓ 영문 시험으로 한글 시험 지원여부는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Associate(기본), Professional
(전문가) 2종으로 전문가 자격증은
AWS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 및 배포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만 응시 가능



ADsP

-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공인자격 제2018-01호)
- ✓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 ✓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분석 기획
및 데이터분석 등의 직무 수행
- ✓ 마케팅, 데이터분석,
통계 분야 취업 가능

빅데이터 분석기사

- ✓ 국가기술자격증
- ✓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획, 시각화하기 위한 자격증
- ✓
 -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전공 무관)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 경력(전공, 직무 무관)
 -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전공, 직무 무관)
 -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목 무관)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종목 무관)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종목, 직무 무관)
 - 4년 이상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직무 무관)만이 응시 가능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 ✓ 1984년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관리 협회(PMI)가 주최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국제자격
- ✓ 시스템 개발 계획을 원활히 운영하는 책임자로 PM 실무 경험이 4,500시간 이상 (대졸자 기준/ 고졸자의 경우: 7,500시간), 공인된 프로젝트 관리 연수 35시간 수강한 사람만 응시 가능
-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CCR(Continuing Certification Requirements Program)로 불리는 프로젝트 관리 학습 이행 필수. 학습 이행 시 PDU 단위를 취득. 자격 유지 시 PDU 단위 60포인트 이상(3년) 취득 필요.
- ✓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자격 일시정지. 그 사이에 연수 수강 등을 통해 PDU를 과거의 3년간과 아울러 60포인트 이상 취득 → 자격 부활 / 취득실패 → 자격 소실

사회조사분석사 1,2급

- ✓ 국가기술자격증
- ✓ 정보기술분야 기능사
- ✓ 각종 연구소, 연구기관, 국회, 통계청,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 등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취업 가능
- ✓ 1급은 해당분야 3년 경력 보유해야만 응시 가능

컨벤션기획사

- ✓ 국가기술자격증
- ✓ 행사기획자, 회의기획자, 국제회의기획자 등 MICE 분야로 취업가능
- ✓ 필기+실기로 이뤄지며 실기는 6시간가량 진행
- ✓ 1급은 2급 취득 후 3년, 또는 2급 자격증없이 4년의 경력 보유해야만 응시 가능

정보처리기능사

- ✓ 국가기술자격증
- ✓ 기업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언론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업체 취업 가능
- ✓ 2020년 NCS 기반(응용SW가초기술활용, 프로그래밍언어활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SQL 활용)으로 개정

투자자산운용사

-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
- ✓ 증권사 취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
- ✓ 기존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시험과목 면제
- ✓ 연 3회 시험 시행



험난한 청년 취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성공!

숙명여자대학교 류서진·유서현 동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

류서진 님

대학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취업입니다.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학생들이 많죠. 고용노동부는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두 동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

유서현 님

생생한 실전 연습을 통해 취업하세요

류서진 님

Q _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17학번 류서진입니다. 지금은 현대자동차 TaaS본부에서 테크니컬 피엠(Technical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_ 테크니컬 피엠(Technical PM)은 조금 생소한 직업이네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말 그대로 기술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할 인적자원 및 인프라 관리부터, 사업팀과 함께 웹/앱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분석/설계하고, 프로젝트 개발 과정의 이슈 트래킹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최종 QA를 거쳐 서비스 런칭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키텍처 설계, 디펜던시 분석, 릴리즈 개발 사이클 관리 등 프로젝트의 전체 기술 로드맵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조업이다 보니 흔히 차량 판매와 관련된 IT 업무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카셰어링 뿐만 아니라, 차량 구독 서비스, 법인 차량 공유 서비스, 물류/유통의 전 영역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테크니컬 피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_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하셨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우선 스마트센서/진단 현직 전문가, 커넥티드/IoT 현직 전문가, 인공지능/자율주행 현직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다양

한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배와의 간담회와 국내외 IT 벤처 기업 및 게임 기업을 탐방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선배님을 만나 멘토링을 듣고 필기시험이나 면접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회사의 분위기, 복장, 업무 방식 등 다양한 회사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면접 준비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상 질문이나 자소서 항목 중 더 궁금한 이야기 등을 모아 모의 면접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 미처 몰랐던 언어적, 비언어적 습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제 면접에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_ 숙명여자대학교를 비롯해 최근 다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학년이니까,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민하지 말고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의 다양한 사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요. 어려운 도전을 반복하다 보면 흥미가 있는 세부 분야를 찾기도 쉽고, 무엇보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의 경우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보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의
다양한 사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요.
어려운 도전을 반복 하다 보면
흥미가 있는 세부 분야를 찾기도 쉽고,
무엇보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코학년생들은 가고자 하는 회사의 최근 공고를 통해 수행 직무, 우대사항, 역량을 정리하죠. 이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숨겨진 나의 역량과 강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Q _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팁을 주자면요?

코로나19 시국이기도 했지만, 저는 취업 준비 동안 요즘 꼭 한다는 필기시험 스테디나 면접 스테디를 오히려 하지 않았 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 자존감이 더 낮아져서 면접에서 내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될까 걱정됐거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면 스테디보다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생님을 만나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 대한 면접 질 의응답을 연습하는 걸 추천해요. 어느새 실제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Q _ 앞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 시나요?

100개의 채용 공고에는 100개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취업은 Best 1을 뽑기보다는 Only 1을 선택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취업 준비 과정을 참고만 하되 무조건 따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면접 역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취업을 지원 방향을 제시해해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 본인도 모르는 역량과 강점을 찾아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탐색'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와 동시에 내면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유서현 님

Q _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16학번 유서현입니다. 뽀로로와 타요, 그리고 최근 잔망루피로 많이 알려진 아이코닉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광고와 유튜브 파트너세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Q _ 파트너세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유튜브 파트에 소속돼 있어요. 유튜브 광고 업무는 말 그대로 아이코닉스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뽀로로·타요 언어별 채널, 잔망루피 채널 등)을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광고하는 일이죠. 또 유튜브 파트너세일즈 업무는 광고주들이 아이코닉스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들의 광고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이 매체로서 다른 광고주의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흔한 게 아닌데요. 아이코닉스의 유튜브 채널이 그 규모와 영향력을 인정받아서, 지난해 말부터 구글과의 계약을 통해 직접 광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Q _ 대학생 때 인턴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의 업무와 연관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름 여러 회사에 다녔고 여러 가지 직무와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턴부터 정규직 사원까지, AE(광고 기획자), 디지털 마케터, 그리고 미디어 플래너로서 일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가 경험했던 일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지금 하는 업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튜브 광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기간, 예산, 광고 소재 등을 정하고 각 유튜브 채널 담당자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디어랩사에서 미디어 플래너로서 업무를 했을 때와 가장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코닉스가 타 브랜드와의 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경험했던 AE나 디지털 마케터와 유사한 점도 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을 통해
인턴이 끝난 후에는
그곳에서 받은 피드백과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업무 등을
또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어요. 주로 제안서를 쓸 때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콜라보레이션과 유사한 개념의 ‘브랜드 콘텐츠’를 제안할 때는 대략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분석과 수치 자료를 통한 설득,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종합해 제안하는 것이 AE나 디지털 마케터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Q _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했습니다. 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과제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 계획적으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부득이한 경우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분의 선생님께 컨설팅 받았는데요. 선생님께서 저의 모든 대학 생활은 물론 성격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대학 생활, 인턴 준비, 취업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선생님과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Q _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1학년 말~2학년 초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대학 생활을 계획적으로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입학 후 1년간 수행한 대내외활동 목록을 들고 컨설팅받았습니다.

1년 동안 구체적인 목표나 제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없이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 했어요. 그러던 중 ‘다들 컴퓨터공학이 대세라고 복수전공을 하는데, 나도 그래야 하나?’, ‘나는 술을 잘 못 먹어서 큰 동아리 활동이 싫는데, 꼭 해야 하나?’ 등 여러 고민거리가 생겼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여러 번 상담을 통해 점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 덕분에 대내외활동뿐만 아니라 인턴 할 회사



를 고를 때와 지원할 때도 저와 잘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이 끝난 후에는 그곳에서 받은 피드백과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업무 등을 또 상담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담당 선생님은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활동이나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은 회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여러 회사를 지원해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반복하며 나만의 노하우를 찾고, 내면도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학기별로 어떤 활동과 스펙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과 취업 준비 시에 서류와 면접 컨설팅, 그리고 흔들리고 방향할 때마다 진심으로 조언해주시면서 선생님이 자 인생 멘토, 따뜻한 언니의 역할까지 해주셨어요.

Q _ 어떤 학생들에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준생 고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알찬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추천해요. 본인이 한 활동들을 꼭 나열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대학 생활을 할지, 나는 어떤 직무를 선택하고 어떤 회사에 가는 것이 좋을지 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의 일할 기회 늘리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정책들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였습니다. 이에 기업, 지자체, 정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통계출처: 2021년 11월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자료, 2019년 기준)





청년일자리 도약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의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뜻합니다. 단, 고졸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됩니다.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검색, 선택하여 참여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대상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운영기관에 꼭 미리 확인 바랍니다.

뭘 원하시지 몰라서 모든 정보를 준비했어요

온라인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총 3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등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으로 정책 유형과 지역을 설정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 상담 기능이에요. 카카오톡, 게시판 등을 통해서 정책이나 공간에 대해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진로 고민을 하는 청년이라면 심층상담도 가능합니다. 심층상담은 분야별 전문상담사와 1:1 온라인 상담하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면 카카오톡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이나 화상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심층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회원가입 및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전국 청년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공부, 그룹스터디, 공유부엌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해 정보도 제공하고, 공간에서 열리는 취·창업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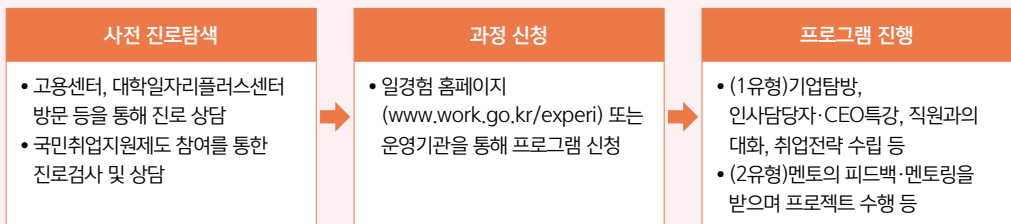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미리 체험해보고 선택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교생, 대학생, 청년장병, 취업준비생으로 분류해 운영합니다. 참여자는 기업탐방, 인사담당자 특강 등으로 구성된 1유형 프로그램(1일~5일)과 멘토의 피드백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2유형 프로그램(8일~10일)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체계



청년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으로 청년 본인은 2년 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2년 간 600만 원을 적립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 간 근속할 경우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 취업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에게 해당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 할 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기여금도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규모별 기업 부담 비율

30인 미만	30인~49인	50인~199인	200인 이상
면제	20% 부담	50% 부담	100% 부담

구직을 포기하지 말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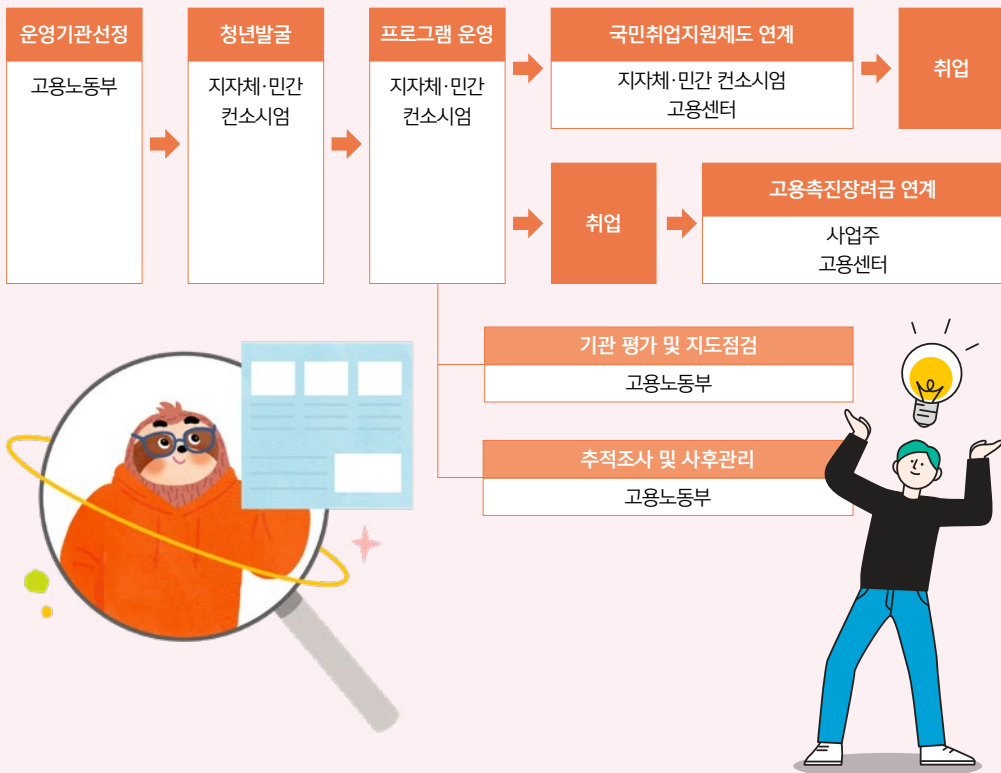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져 구직을 단념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해 운영하며 지자체와 함께 구직 포기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그 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입니다.

각 지자체의 구직단념 청년 모집 후 1:1 밀착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후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해 진행되며 이수 후 실비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022년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개 / 강원도 3개 / 충청도 4개 / 전라도 3개 / 경상도 5개 / 부산, 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28개 지자체 선정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캠퍼스에서 취업고민을 해결하세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111개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2년 이내), 지역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 정책으로 현재 전국 11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30만여 명의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6만여 명의 청년에게 재학 중 일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21년 기준)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준비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국민내일 배움카드



희망찬 내일을 열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2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1~2학년 해당),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의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의 유효기간인 5년동안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훈련비 중 일정 비율(15~55%)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부담 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apter 2



내 일로

부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속도보다 방향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무엇이든지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속도가 제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고

속도가 빠르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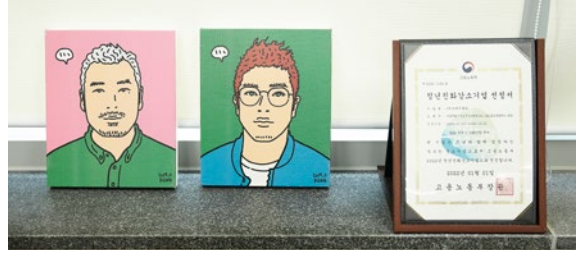
1등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스템, 문화 그리고 사람의 콜라보레이션

브레인콜라



좋은 콘텐츠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데서
시작한 브레인콜라는 콘텐츠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엔진과
취향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무섭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브레인콜라에는 명확한 규칙 안에
자율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깊이 심겨 있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유저의 활동 분석은 물론
 자연어 처리를 통한 콘텐츠 문맥
 분석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매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독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죠.



콘텐츠 발굴과 매칭 서비스로 시작

텍스트 기반 스토리를 분석해 독자와 작가, 플랫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브레인콜라(Braincolla)의 독특한 사명은 두뇌(Brain)와 협업(collaboration)의 합성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은 물론 인간의 두뇌와 기계의 두뇌 형상을 이미지화한 로고에서 알 수 있듯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브레인콜라는 2015년 콘텐츠 영역에서 AI 솔루션을 개발하며 시작했습니다. 김강산 대표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창업한 서울대 최초 교육 벤처 이투스에 초기 구성원으로 합류하면서 스타트업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SK컴즈와 이투스교육에서 콘텐츠 기획과 출판 비즈니스 본부장을 지낸 뒤 브레인콜라를 창업했습니다.

“콘텐츠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레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초기엔 책방 잉크(iinnk)라는 모바일 앱으로 시작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유저의 활동 분석은 물론 자연어 처리를 통한 콘텐츠 문맥 분석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매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독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죠.”

책방 잉크는 2016 공공데이터활용창업경진대회 행정자치부장관상, 2017 스마트 앱어워드 문화콘텐츠 분야 대상을 수상할 만큼 획기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손꼽혔습니다. 그러나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던 브레인콜라에게 2017년 웹소설 플랫폼 조아라(Joara)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아라는 이후 오프라인 출판물 위주였던 브레인콜라의 시장성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데 큰 도움을 준 파트너이자 현재까지 브레인콜라의 든든한 협업 파트너입니다.

기본에 탄탄한 복지와 청년이 다니기 좋은 환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브레인콜라는 구글 GCP 테크놀로지 파트너를 비롯해 예스24, 온라인 서점 알라딘, 블록체인 디파이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오지스(Ozys) 등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콘텐츠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은 콘텐츠 타깃 솔루션 마키안(Makian)입니다. 마키안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퀀스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일어날 아이템 또는 유저를 예측하는 딥러닝 엔진입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과 콘텐츠를 이룰 수 있는 블

록체인 프로젝트, 초기 투자 유치 플랫폼인 런치패드 서비스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파트너십과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강산 대표와 그를 잘 따라온 직원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김강산 대표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뒤, 선진적인 조직 문화를 세운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브레인콜라는 2년 연속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브레인콜라에는 경력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연봉, 프로젝트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보상,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 교육 및 세미나 비용 지원, 대학(원) 학비 지원, 경

조사 및 기념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로운 시차출퇴근 제도를 통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근무 일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브레인콜라의 공유오피스는 서울 마곡과 강남에 있습니다. 8명의 직원은 자유롭게 근무지를 선택해 탄력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콜라에는 20대부터 50대 직원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에서 하는 당연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서 대기업을 경험하기도 했고 본사와 합병을 반복하며 나름 다양한 회사의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때 겪은 좋았던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팀원들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력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연봉, 스톡옵션, 프로젝트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보상,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 등을
 운영합니다.

것들을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브레인콜라는 창업 이후 매년 임금이 상
 승했습니다. 좋은 인재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김강산 대표의 철학
 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팀원들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죠. 경력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연
 봉, 스톡옵션, 프로젝트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보상,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 등을 운
 영합니다. 물론 청년 내일 지원금 등 제도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원합니다.

규칙과 자율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다

김강산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요소는 시스템, 문
 화 그리고 사람입니다. 코로나 전부터 시
 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공고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은 코로나19의 타격에도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에 도
 움이 됐습니다. 그중 80여 페이지의 컬처
 북은 엄격한 규칙 속에서 자율을 중시하
 는 브레인콜라의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지킬 건 지키는 선에서 자율을 찾기 위해
 만들었어요. 컬처 북은 브레인콜라에 처
 음 입사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
 야 하는지, 근태 관리는 어떤식으로 돌아
 가는지, 휴가를 쓰거나 비용 처리를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를 모두 모아
 놓은 책이에요. 전자제품의 사용설명서
 같은 것이죠. 다양한 회사를 경험해보니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란 결론에
 닿더군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거창

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메일을 보낼 때 매너 있는 말투를 쓰자고
 정하는 것도 시스템이죠. 창업 전부터 컬
 처북의 필요성을 느꼈고 창업 후에는 자
 연스럽게 만들어온 것이에요. 처음 온 직
 원들이 당황하기도 하지만 곧 편리함을
 느끼곤 하죠.”

브레인콜라는 지금의 기분과 감정을 그대
 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
 는 분야에 자신감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
 돼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원에서 석사
 나 박사를 마치고 첫 회사로 오는 직원들
 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해
 보지 못한 직원들은 이런 규정된 시스템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직원들이 비
 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처럼 역할과 약속
 을 명확히 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은 문화
 와 시스템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
 는다는 브레인콜라의 철학 덕분입니다.

브레인콜라는 얼마 전 ‘서울창업진흥원
 (SBA) 우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사
 업’을 통해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을 완료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우
 리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퍼블리싱하며 브레인콜라의 가
 치를 나누려 노력합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
 작자, 유저, 플랫폼, 투자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하
 고자 합니다. 나아가 작가와 크리에이터
 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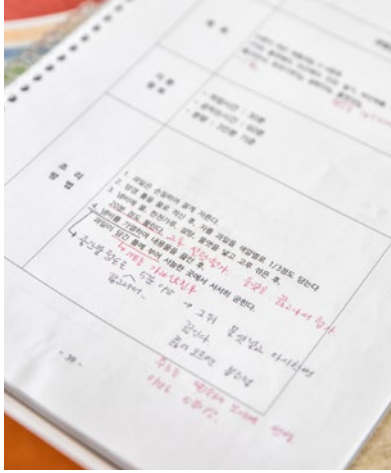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선물한 희망이 깃든 미래

박세정 조리실무원

남편과 함께 두 딸을 키우던 박세정 씨는 20여 년간 경력이 단절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집안 사정이 휘청거리게 되자 20여 년간의 공백을 깨고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막막한 박세정 씨 앞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것은 국민내일배움카드였습니다.





부라부라 취업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우연히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들었어요. 암울한 시기라
큰 기대 없이 무작정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방문했어요.

슬픔과 함께 찾아온 생계 걱정

대학 졸업 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애니메이터로 오래 일한 박세정 씨는 결혼 후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노력 끝에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세정 씨는 그렇게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남편의 아내로 20여 년 간 주부로서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결혼과 출산이 조금씩 늦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취업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흔, 마흔다섯... 나이가 들어가며 자신감도 점점 낮아졌죠. 사실 남편이 옆에 있으니 급하지 않아 취업을 미루게 된 것도 있어요. 나중에 애들이 좀 더 크면, 아이들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일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50대에 들어선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2019년 8월, 남편의 총수암 판정이었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함께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놓이자 박세정 씨가 취업해야 했지만, 남편의 병세가 갈수록 심해져 당장 일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1년 반의 투병 끝에 2021년 1월, 박세정 씨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니 너무 막막하더군요.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이 현실이 밀물처럼 들이닥쳤어요. 아이 키운 것 말고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여유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라부라 취업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우연히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들었어요. 암울한 시기라 큰 기대 없이 무작정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방문했어요.”

신중한 상담으로 결정된 자격증 취득

방문한 센터에서 상담사에게 직장 생활의 공백과 한부모로서 취업이 필요한 박세정 씨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취업지원제도를 설명하며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해보고, 급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함께 앞길을 고민하자”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님께서 한 번 취업하면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작하면 실패도 줄 것이라고 위로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선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제 취향에 맞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카페나 브런치 카페를 하고 싶었던 박세정 씨에게 상담사는 “미래에 여유가 생겼을 때 창업을 알아보는 게 더 좋다”고 권유해주었습니다. 컴퓨터 쪽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많아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만들기를 좋아해 목공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비슷한 이유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상담 끝에 평생 시에 자주 접했고 취업하기에 적당한 나이임을 고려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세정 씨가 국민취업제도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 과목을 배울 수 있고 교육의 100%를 지원받게 된 겁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 수업이 인기가 많아 순번이 자주 밀렸어요. 두 달가량 강의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미로 배울 수 있었어요. 이후 10회째리 디저트 강좌도 듣고 수료했죠. 배워온 것으로 집에서 디저트를 만들어 주변에 선물하면서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더 관심이 갔어요. 결국 기다림이 끝났고 지난해 5월부터 2달간 한식 조리사 과정 수업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노력 끝에 2021년 7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인생의 희망이 되어준 국민내일배움카드

기다림이 길었던 박세정 씨에게 좋은 소식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식을 배우던 지인이 하반기 교육공무직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왔으며 지원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칼이 많이 쓰이는 한식 조리사 과정에선 스톨로 칼을 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칼 가는 것을 남들보다 더 잘했던 박세정 씨는 함께 배우는 동료들의 칼을 종종 갈아주곤 했는데, 그중 한 분이 고마운 마음에 취업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아직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도 전이었지만, 박세정 씨는 최선을 다해 응시 원서를 만들어 넣었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결국 한식 조리사 취득과 취업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박세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창동중학교에서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20여 년간 주부로 살아온 제가 당당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가장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저를 걱정하며 지켜보는 가족들과 주변 분들이 모두 기뻐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저를 상담



20여 년간 주부로 살아온
제가 당당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가장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저를 걱정하며 지켜보는 가족들과
주변 분들이 모두 기뻐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저를 상담해주신
상담 선생님이 너무 기뻐해 주셔서 행복했어요.



해주신 상담 선생님이 너무 기뻐해 주셔서 행복했어요. 선생님께선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세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두 개의 자격증을 따내 너무 대단하다며,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박세정 씨는 여전히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인 두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재미있고 퇴근이 빨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지도 모르는 저의 인생에 희망이 되어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무척 고마워요. 이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잘 키우고 싶어요.”

Tip.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전하는 박세정 씨의 당부

“갑자기 일이 생기고 취업 전선에 몰리니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여유가 생길 때마다 ‘좀 더 크면 일하자’는 마음으로 미뤘던 것을 후회했어요. 과거에 짊어 날 때마다 하나씩 배워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요.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급하게 흘러갈지 몰라요. 일찌감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조금씩 역량을 넓혀가는 것을 추천해요.”

웨딩카를 운전하는 은발의 노신사들

더쇼퍼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더쇼퍼는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의 이동을 돕는 웨딩카 이동 서비스 사회적기업입니다. 호텔 총지배인과 대리운전기사를 겪은 노경환 대표가 창직한 중장년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은발의 노신사들이 운전하는 웨딩카는 시니어에겐 일자리를, 신혼부부에게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더쇼퍼의 노경환 대표를 만났습니다.



더쇼퍼의 역사는
노경환 대표의 은퇴와 함께
시작됩니다. 20여 년간
호텔 총지배인 생활을 하다
62세 은퇴한 노경환 대표는
인생 2막을 열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의 롤러코스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음을 보이자, 인생의 새 출발을 앞둔 신혼 부부가 웨딩마치를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식장은 전례 없는 성황을 맞았고 하객들은 젊은 부부를 향한 축복을 쏟아내죠.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웨딩카입니다. 과거엔 친구나 지인이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해주는 문화였다면, 최근엔 신랑, 신부가 직접 운전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노경환 대표는 2016년부터 결혼식을 더욱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웨딩카와 기사를 호텔식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더쇼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쇼퍼의 역사는 노경환 대표의 은퇴와 함께 시작됩니다. 20여 년간 호텔 총지배인 생활을 하다 62세 은퇴한 노경환 대표는 인생 2막을 열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몸담은 호텔을 떠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군요. 재취업 활동을 통해 나이 장벽에 부딪히는 현실을 깨닫곤 했죠. 조직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한동안 자유로움에 만족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정에선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았죠. 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백여 통에 달하는 이력서를 여러지거 보냈지만, 답은 없었어요.”

처음 생각한 것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자원봉사 포털 1365에 가입하고 집에서 가까운 청소년 직업체험관 ‘잡월드’와 ‘생태공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람 있는 시간이었지만 노경환 대표는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 개월간 받던 실업수당이 종료되고 수입이 ‘제로’가 되자 그는 거친 일터의 현장으로 다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이었습니다.

대리운전 그리고 웨딩카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친구의 주선으로 시작한 대리운전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날부터 그에겐 큰 시련이 왔습니다. 첫 고객을 태우고 긴장한 나머지 내비게이션 안내 코스를 따르지 못해 20분가량 늦게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주행을 끝난 후 그에게 한 말은 아직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출발 전에 오늘이 첫 출근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전에 무엇을 하셨죠? 감히 충고를 드린다면 선생님은 대리운전 직업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그날 어떻게 다음 목적지까지 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정도로 무너진다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까?’ 하는 오기도 들었습니다. 첫 출근을 마치고 그의 손에 남은 수입은 5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노경환 대표는 4년을 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노경환 대표는 대리운전을 하며 다양한 취객을 만나게 됩니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그에겐 고난과 힘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사회가 대리운전 기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편하진 것도 체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대리운전 기사를 보는 시각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더 쇼퍼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낮에는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새로운 개념의 은퇴 직업으로 창업하자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제 첫 직업을 살려 호텔 서비스처럼 고급화하고 싶었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에 지원했지만 두 번을 낙방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을 쇼퍼로 육성하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웨딩쇼퍼 양성교육은 서울시 50+재단 서부캠퍼스와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매년 두 차례 열립니다. 나아가 시니어들이 주중에도 일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분야의 쇼퍼 일자리를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 기관의 창업아카데미에서 수업받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때 우연히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고, 그동안 고민하던 창업 아이디어에서 확장할 기회를 만났죠.”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 미션

결혼식 당일 차를 직접 운전하고 나서는 아들을 보며 웨딩카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입니다. 점차 구체적인 창업 구상이 확장됐고 웨딩카 이동서비스인 더쇼퍼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결국 세 번의 낙방 끝에 더쇼퍼는 2016년 성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인큐베이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서울시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28명의 쇼퍼를 배출했습니다.

더쇼퍼는 신랑, 신부가 안전하고 편안한 결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시간·5시간·8시간·10시간 등 사용 시간별로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과 샵, 웨딩홀과 호텔 또는 공항까지 이동이 많은 결혼식 날 상황에 맞게 든든한 기사와 차량을 서비스합니다. 더쇼퍼는 결혼식 외에도 병원이 필요한 시니어를 안전하게 모시는 웰케어 쇼퍼, 골프라운딩 같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을 위한 꽃중년 쇼퍼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대기업과 함께 의료 현장에 혈액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며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19가 풀린 지금, 다시금 더쇼퍼를 홍보해야 하는 숙제에 당면해 있지만 노경환 대표는 특유의 긍정을 잃지 않습니다.

“더쇼퍼를 운영하며 많은 분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뜻한 자식과 부모의 가슴 아린 이야기를 옆에서 바라보며 함께 눈시울 붉히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창업으로 가는 험한 여정이 쉽진 않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힘든 경험이 더 열심히 더쇼퍼의 쇼퍼를 교육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을 쇼퍼로 육성하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웨딩쇼퍼 양성교육은 서울시 50+재단 서부캠퍼스와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매년 두 차례 열립니다. 나아가 시니어들이 주중에도 일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분야의 쇼퍼 일자리를 보다 더 다양한 방면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설레는 꿈으로의 다이빙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배소은 씨



살면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에게 이른 경력 단절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바닷속이 좋아 좋아하는 일을 하던 배소는 씨는 이집트 다합에서 돌아온 뒤 막막함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서른에 떠난 이집트 다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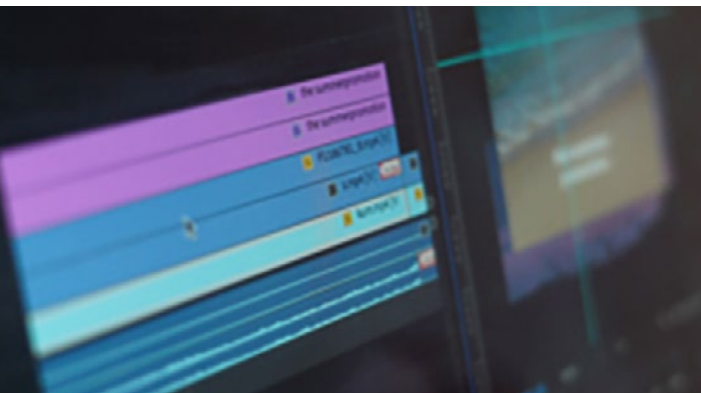
서른다섯. 누군가는 서른다섯이 어리다고 하겠지만, 그 나이의 청년이 무언가를 시도하기엔 부담스러운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배소는 씨가 그랬습니다.

배소는 씨는 보건환경과를 졸업하고 석면 조사관으로 4년 넘게 일했습니다. 첫 이력서를 넣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됐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채취된 시료를 현미경으로 분석해 석면의 유무를 알아내고 그에 맞는 철거 방법을 판단하는 전문직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과 밝은 성격 덕분에 어디서 “NO”라는 답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2016년 우연히 접하게 된 프리다이빙은 그의 세상을 넓혀주었습니다. 바닷속 무한한 고요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프리다이빙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점점

진지하게 프리다이빙을 대하게 됐고 더 많은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2016년 12월, 서른 살에 첫 직장을 그만두고 이집트 다합으로 떠났습니다. “서른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 다합에 갔더니 많은 여행자가 있었고 다들 젊었어요. 배낭 하나 메고 세상을 다니는 게 신기하기도 했죠.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교류를 했지만 제 세상이 좁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 재미있었죠. 다합에서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 생활을 했어요. 행복했죠.”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더 이상 다합에서 돈을 벌 수 없어졌습니다. 한창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년 배소는 씨는 고민 끝에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우연히 만난 국민취업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으로 돌아온 배소는 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린 나이에 온 경력 단절이었죠. 나이를 이유로 간단한 아르바이트에도 떨어졌고, 아르바이트하기엔 스펙이 너무 좋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관련학과 자격증까지 있었지만, 기간제 공무원에 아쉽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헬스클럽의 카운트 업무를 봤지만, 손님들로부터 상처받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NO”란 대답을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계속 듣게 됐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점점 집으로 틀어박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자니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뿐더러 교육 환경이 다합과 달라 힘들더군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았어요. 실패라는 걸 경험해본 적 없었는데,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패가 한 번에 다 몰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의기소침한 마음이 심해져 우울증이 왔고 그 탓에 몸무게도 15kg가량 늘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기에 주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게 있으니 신청해보라고 하더군요.”

막연히 상담을 위해 찾아간 배소는 씨에게 담당 선생님은 저소득자를 상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제도를 추천했습니다. 수익이 없던 배소는 씨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유난히 만원 버스나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을 힘들어해요.
출근하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진 적도 있었죠.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배우면서 아침 9시 수업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먼저 도착해 기다렸어요.
그렇게 즐거운 배움은 처음이었어요.

프리다이빙 강사라는 직업 탓에 한 번 탈락했지만, 담당 선생님의 설득으로 결국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지속해서 취업 관련 연락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성과 인성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취업 활동을 못 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이력서 쓰는 방법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좀 수업을 통해 배웠습니다. 면접 보는 방법도 함께 연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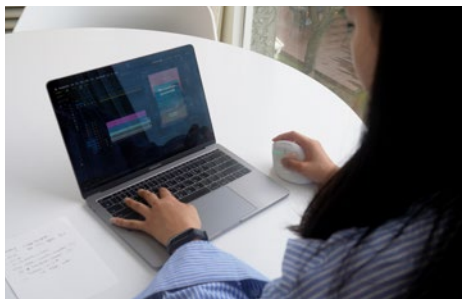
“고민 끝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영상 편집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2달 동안 매일 9시부터 1시까지 영상을 배웠어요. 저는 유난히 만원 버스나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을 힘들어해요. 출근하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진 적도 있었죠.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배우면서 아침 9시 수업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먼저 도착해 기다렸어요. 그렇게 즐거운 배움은 처음이었어요.”

위축된 삶을 희망으로 채우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영상을 배우는 일은 위축되었던 배소는 씨의 삶에 큰 활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촬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은 무척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브이

로그를 만들고 직접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포토샵의 기본을 알고 있던 배소는 씨는 남들보다 더 빨리 영상 편집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좋은 일부 학생은 좀 수업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배소는 씨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피드백이 바로 나오는 오프라인 수업이 훨씬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자연스레 좋은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편집 스킬이 생기자 주위에서 하나씩 일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교육이 끝난 뒤부터 홍보대행사 등에서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학원도 매주 취업 소식을 전하며 진행 여부를 꼼꼼히 묻고, 확실한 피드백을 세워줍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학생인지 다 기억하니 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해주는 담당 선생님이 배소는 씨에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직 화려한 영상을 만들진 못하지만, 간단한 촬영본을 편집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운이 좋았죠. 한창 구직활동 할 때 많은 분이 다시 이집트에 갈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막상 전 계획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절망에 빠졌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영상을 배운 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예요. 다이빙 센터에서 홍보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수업 듣길 정말 잘했어요.”



Tip.

배소는 씨의 국민내일배움카드 TIP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고 이토록 좋은 제도를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쉬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했어요. 저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거치는 방법을 추천해요.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출석을 다 하면 소정의 교통비를 제공하기도 해요. 사실상 좋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MOEL News

1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개혁 추진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의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개혁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 관계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두번째, **중대산업재해 감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6월말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전년동기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현장의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5년 이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①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②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③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④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입니다.

최근 가중되는 일자리 어려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 하에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편성·운영권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준비중입니다.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청년,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해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주제로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 세미나(총 31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12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대면 행사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운영, 온·오프라인 혼합형식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축소하여 운영했던 국제안전보건전시회와 세미나를 정부의 일상회복 전환 방침에 따라 대폭 확대 운영하며, 일반국민들이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최신 안전보건기술, 스마트 보호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자 중심의 대규모 체험형 전시회 운영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관련 중요 현안을 주제로 별도의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정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진행 세부 내용 및 참여 방법 등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홈페이지(www.safetyheal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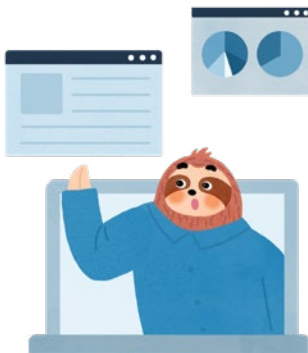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새 정부 국정과제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 공유, ②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③당면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변화를 상징하는 만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에게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산하기관장들은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OEL News

4

2022년
'4, 5, 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프레스 금형분야 전문가 박현 대표(태경㈜)를 4월, 5월에
는 (주)청룡수산 문영섭 대표, 6월 계림산업 이점섭 대표 등 3명을 올해 4~6월 「이달의 기능한
국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
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2년 6월 기준 184명 선
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각자의 산업 분야를 빛내는 분들이자 미래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자”라면서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 성공 비결을 미래세대
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또 다른 기능한국인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
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물론,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전문가 지원단, 삼성전자, LG, 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커넥트재단,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인사담당 임원 등 14명 내외가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모인 주요 기업들과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역량향상 기회 확대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 ▲구직단념 청년, 지방 청년, 대학 재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방안에 대해 함께 나눈 애기와 고민을 담아 기업과 정부가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넘어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힘써 주길 바라며,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훈련 사업에 참여했고, 특히 훈련이 필요한 기업들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를 기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첫 번째, 기업훈련 규제혁신으로 훈련의 양적·질적 성과 제고는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 도입,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실시, ▲기타 훈련규제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기업맞춤형 훈련서비스로 훈련 접근성 강화 방안입니다. 이는 훈련이 필요하나 훈련정보 등이 부족하여 막막한 기업에게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운영, ▲우수 훈련 콘텐츠 확충,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 공동훈련(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활성화 방안으로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훈련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공동훈련센터 운영 효율화 및 사각지대 해소,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훈련거점 육성(특화형), ▲규제혁신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등입니다.



7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착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① 방유제(턱): 누출된 액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높게 쌓은 둥 모양의 시설물

② 트렌치: 액체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시설물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¹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²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합니다. 상생형 어린이집³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1.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2. LoC(Letter of Confirmation):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한 화학물질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수입업체 다수가 LoC를 활용 중)

3. 상생형 어린이집: 대기업 등이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공동 이용하는 어린이집

8

청년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12개사에서 55건의 법 위반이 있음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적발¹⁾되었는데, 다만, 동종분야에 대해 '20년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하며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1600여만 원 미지급(근기법 제56조 위반) ▲연장근로시간 위반(근기법 제53조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고평법 제13조 위반) ▲노사협의회 미개최(근참법 제12조 위반) 등



9

‘청년희망,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우수사례 10편을
선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10편을 선정하여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시 구직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

문 또는 누리집(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슷한 환경의 청년들에게 성공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공모전에는 모두 31편의 우수사례가 접수됐고 그중 10편을 수상작(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으로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10편의 우수사례는 모음집과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로 제작해 고용노동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직장을 잡기 위해 애쓰지만, 자신감을 잃거나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노동시장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취약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상작 선정 및 포상 내역>

구분	선정인원	내용	비고
최우수상	1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시현하다” 프로필/증명사진 촬영권
우수상	2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 및 상금 50만 원	
장려상	7	상금 30만 원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여러분, 업그레이드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나 자신을 대체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내 안에 꿈틀대는 잠재력을 깨워 재능을 펼치며,
소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 멘탈을 갖는 등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실속정보를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드라마 <클리닝 업>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증권사 미화원으로 일하는 주인공이 우연히 듣게 된 정보로 주식 전쟁에 뛰어들어
예측불허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클리닝 업>은 원작의 인기와 더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웃음과 슬픔, 고통과 희망이 담겨있는 드라마 속에서도 흥미로운 노동법,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미화원, 편의점 알바, 가사도우미 싱글맘의 고된 삶을 다룬 드라마



주인공 용미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싱글맘입니다. 이혼 후 아이 둘을 건사하기 위해 평일에는 미화원, 저녁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합니다. 밤새도록 증권사 미화원으로 일하지만, 쉬는 공간조차 마땅치 않아 사무실 한쪽에 앉거나 옥상에서 개인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에 퇴근한 용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고민 끝에 “주말 근무도 파트장에게 부탁해 봐야겠다”고 결심하죠. 두 아이와 살아갈 생각에 용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채 돈을 벌 궁리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필수노동자 여러분, 힘내세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의 필수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해당 노동자의 건강 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죠. 필수 노동자의 위생시설 설치 지원, 백신 접종 확대 등 다양한 보호,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없어진 시계, 미화원이 무조건 범인? 인경이 쓴 억울한 누명



증권사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은 다양한 차별에 맞서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무시와 폄하를 견디는 것도 그들에겐 일상입니다. 사무직 직원이 사라진 시계를 두고 청소 과정에서 미화원이 가져갔다면 인경을 의심합니다. 파트장 역시 인경을 몰아붙이며 시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차곡차곡 모은 인경의 통장을 두고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청소해서 이만한 돈을 모을 수 있나요?”하며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용미 덕분에 사라진 시계를 찾고 누명을 벗지만 억울함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별 없는 일자리를 지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원단은 다양한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차별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전국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차별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세요.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발각된 정체 증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용미



드라마 <클리닝 업>은 진행될수록 두 딸을 지켜야 하는 용미와 배신자를 찾아내려는 내부자 거래단의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치달습니다. 치밀하게 조작된 내부자 거래단에게 미화원 용미의 정체가 발각되자 내부자 거래단의 캡틴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용미는 인경의 집으로 피신하지만, 결국 내부자 거래 모임이 해체되고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증권사에서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용미는 아예 청소 회사를 차려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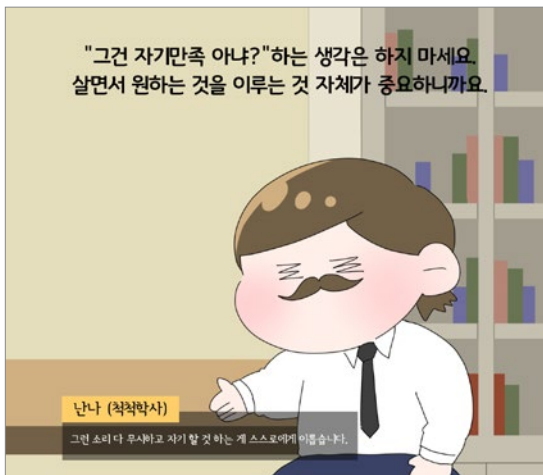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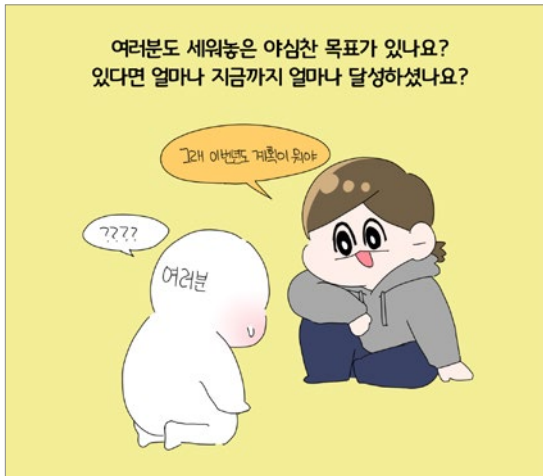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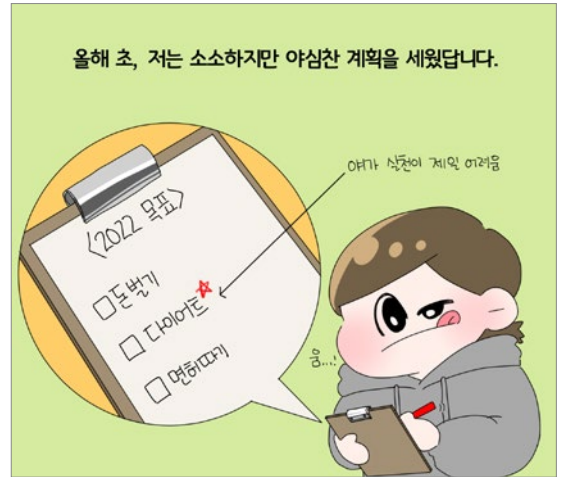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다닌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셨나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가장이라면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부득이한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근무 기간이 기준 이상 충족되고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그리고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나 이직을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부정 수급에 해당하니 유의하세요.





금융뉴스를 이해하는 용어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라는 단어가 일상화될 만큼 금융 분야는 IT 기술을
만나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뉴스가
보이는 법! 금융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크핀

테크핀(Tech-fin)이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독자
적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금융업으로 출발하지 않은 기업이 IT
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테크핀이라고
표현합니다. 2016년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처음 언급
하며 고안된 개념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인 테크핀 사례에 해당합니다. 금융 서비스와 기
술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유사하지만, 금융회사
가 주도한 디지털 혁신을 의미하는 핀테크와 달리 보다
기술이 중심이 된 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 금
융사들이 갖는 금융업 노하우가 아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탈중앙화 신원증명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이란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개인에게 있어 중앙화된 인증기
관을 거치지 않고도 그 데이터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입
니다. 개인은 디지털 서명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인증할
수 있고, 자신의 신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
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후 우리의 디지털 신
원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탈중
앙화 신원증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
생했습니다. 탈중앙화 신원증명에서 디지털 신원을 컨트
롤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 됩니다.



오픈뱅킹

오픈뱅킹(Open Banking)은 조희나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기능을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 개방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앱을 통해 여러 은행의 계좌 조회, 출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오픈뱅킹 서비스는 2019년 10월부터 10개 대형 은행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핀테크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서비스를 정식 운영 중입니다. 사용 중인 은행 앱의 오픈뱅킹 메뉴에서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MyData)는 오픈뱅킹에서 한 단계 진보한 개념입니다. 오픈뱅킹이 은행 데이터의 개방에 한정돼 있다면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 카드사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신의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 유통, 통신, 미디어 등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무는 개념은 마이페이먼트라고 합니다.



멀티팩터 인증

멀티팩터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이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단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비밀번호 인증, 문자 메시지 인증, 지문 인증 등 2개 이상의 요소를 활용해 자신이 자신임을 인증하는 것이죠. 멀티팩터 인증의 수단은 크게 지식, 소유, 속성의 3가지로 나뉩니다. 지식 부문은 대표적으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소유 부문은 그 사람이 소유한 스마트폰, OTP 카드, 통장 및 서류상의 내용 등을 질문해 인증하는 것입니다. 속성 부문은 그 사람이 가진 홍채, 지문, 얼굴 생김새 등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멀티팩터 인증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광복절, 어떻게 보내시나요? 흔한 휴일처럼 편하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하루 정도는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심을 한껏 고취시켜줄 역사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광복절 맞이 역사 큐레이션



말과 얼을 한데 모으다

영화 <말모이>

언어 탄압이 심했던 일제강점기. 알게 모르게 조선어는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들어있는 조선어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말모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어낸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소중함을 느끼기 쉽지 않은 우리말. 영화 말모이를 보고나면,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싹 트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영화 <항거>

“대한 독립 만세!” 1920년 3월 1일,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에서 한 마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화 <항거>는 3.1운동 이후 유관순이 감옥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독립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독립 운동은 감옥을 넘어 저 자갯거리까지 퍼져나가,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잊고 있던 우리 민족의 뼈아픈 과거를 되새기고 유관순 열사의 순국 정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년필 한 자루의 힘

영화 <동주>

시인 윤동주와 그의 사촌 형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송몽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수줍음 많은 동주와 만사에 거침이 없는 몽규는 상반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고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둘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립을 꿈꾸며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일본군에게 그들의 꿈은 죄악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거짓으로 죄명을 만들어 사인을 하게 하지만 동주는 끝까지 사인을 하지 않고 몽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름다웠던 두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뜨거운 실화

영화 <박열>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일본에서는 사망자 14만 명, 이재민 34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었죠. 이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화살을 조선으로 돌립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를 믿은 일본 국민들은 조선인 600여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또 다른 화제 거리가 필요했던 일본은 항일운동 조직을 운영하던 조선인 청년 박열을 천황 암살 계획의 주동자라며 누명을 씁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저항하는 박열의 모습을 보면 마음 깊은 곳의 애국심이 꿈틀거린답니다!



조국을 찾기 위한 작전

영화 <암살>

1933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영화 <암살>입니다. 한국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폭탄 전문가 황덕삼은 김구의 뜻에 따라 암살단으로 선발됩니다. 이들은 조선 총독인 일본 육군 대장 우가키 가즈시게의 암살 작전에 성공하고, 밀정이었던 친일파 염석진을 죽이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암살>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묘사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나라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담은 <암살>을 추천합니다.



이름 없는 그들을 기억하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930년대 항일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1905년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기 전 항거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의병을 주요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영웅처럼 빛나는 않지만 자신의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간 힘을 다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잘 녹아있습니다. 노비였다가 미군이 되어 조선에 돌아온 유진 초이와 양반집 규수지만 알고 보면 의병 활동을 하는 고애신 등 다양한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독립운동가와의 로맨스
웹툰 <고래별>

1926년 일제강점기의 군산. 주인공인 허수아는 친일파 여씨 집안의 딸 윤화의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17세 소녀입니다. 어느날 바닷가에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하곤 정성을 다해 보살핍니다. 기력을 회복한 남자는 홀연히 떠나버리고 수아의 마음엔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수아는 그와 짧게 나눴던 이야기에서 단서를 찾아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였던 그의 동료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수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수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엇갈린 두 소녀의 운명
웹툰 <경성 아상곡>

북촌의 가난한 개동이의 딸 희는 학교에 가보는 게 소원이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빚신장사를 거들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촌의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는 친일파 이환형의 딸 영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지만, 친일파 집안이라는 사실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똑 닮은 둘은 각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맞바꾸기로 합니다. 새로운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잠시, 둘은 점차 지금 이 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깨달아갑니다. 이 둘은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올곧은 정의만 따르리라
웹툰 <나비, 가네코 후미코>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가네코 후미코란 인물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해 돌봐주는 이 없이 험난한 삶을 산 것으로 전해집니다. 1919년 조선의 독립운동을 보고는 깊은 감명을 받아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정신을 길렀습니다. 이 작품은 가네코 후미코의 생애를 통해 당시 일본의 모진 탄압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지난날의 역사를 되짚어봅시다.



외국인이 전하는 우리의 역사
웹툰 <키스앤코리아>

엘리자베스 키스는 1919년 3.1운동 직후 조선에 온 영국 화가입니다. 그녀는 모두가 만류하는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를 화폭에 담기 위해 찾았다가 식민지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웹툰이지만 소리를 중요하게 사용해 민요가락을 글로 적어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마치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실제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 서사에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몰입도 최강인 <키스앤코리아>를 이번 광복절에 한 번 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안중근의 생애
소설 <죽어 천년을 살리라>

우리나라 대하소설의 거장, 이문열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엮은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문열 선생은 지난 2010년 이미 <불멸>이라는 이름으로 안중근 평전을 낸 바 있지만, 제목과 내용을 다듬어 다시 출간한 것입니다.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30년 6개월 남짓의 불꽃같은 삶이 소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독립에 대한 그의 절절한 열망과 굳센 민족정신을 통해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실용적인 역사 활용법
소설 <역사의 쓸모>

대한민국 역사 강의의 일인자 최태성 선생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민과 문제의 해결책은 역사에 있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설에서 도움을 얻듯,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가 담긴 역사에서 인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출신의 한계를 비관하며 절망하는 대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판을 짰 정 도전,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이회영 등 자신만의 궤적을 그리며 살다간 인물의 삶을 통해 오늘날 당신이 구하고 있는 삶의 답을 찾아드립니다.



윤동주의 마지막 시간을 그린다
소설 <별을 스치는 바람>

시인 윤동주가 후쿠오카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 몇 개월의 시간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의 시와 이야기를 들으며 변해가는 냉혹한 일본인 간수와 수용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시 한 편이 어떻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정명 작가는 말합니다. 배경, 인물, 탄탄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흡입력이 있지만 중간중간 윤동주의 시가 더 몰입하게 만들어줍니다. 젊고 청아했던 영혼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한국현대사
소설 <26일 동안의 광복>

한국 현대사의 첫날인 1945년 8월 15일의 24시간과 그 직후 3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나라는 짙은 어둠과 희망이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8월 16일 바로 뱅크런(대량예금인출사태)이 일어났고, 17일부터는 일본군 병력이 주요 도시에 배치되었으며 일본 본국은 식민지의 일본인들을 조선에 그대로 남겨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국가 행정을 넘겨 받으려는 시도는 국내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합의되지 못해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해방의 기쁨 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이들의 26일간을 들여다봅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지하철, 여러분은 어떤 플랫폼에 머무시나요? 티끌 모아 태산인 직장인들의 여가를 유용한 콘텐츠로 꽉꽉 채우는 플랫폼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만 볼 수 있는 콘텐츠, 커리어 현장의 리더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 MZ세대가 주로 머무는 플랫폼, 관점이 담긴 질 좋은 글 한 편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그것이죠. 직장인들의 랜선을 사수하는 유용한 콘텐츠 플랫폼을 추천합니다.

“직장인의 랜선을 사수하라!” 유용한 콘텐츠 플랫폼 추천

책처럼 깊이 있고 뉴스처럼 빠르게! 북저널리즘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를 표방한 북저널리즘은 책처럼 깊이 있으면서도 뉴스처럼 빠르게 지적 콘텐츠를 전달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독자들의 지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구독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정기구독 서비스를 론칭해 책뿐만 아니라 오디오, 강연, 토론 등 지적 성장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전달만을 위한 텍스트가 아닌 맥락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실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래서 관점이 담긴 질 높은 글을 서비스합니다.



북저널리즘



퍼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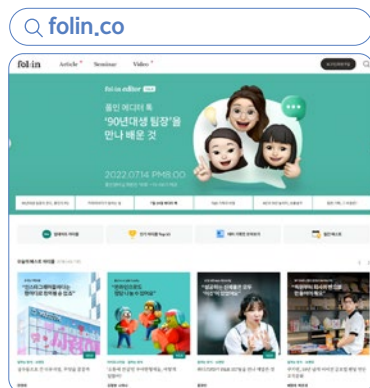
MZ세대 직장인들의 커리어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

커리어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는 약 20만 명이 이용하는 대형 직장인 커뮤니티입니다. 서비스 기획, 커뮤니케이션, 업무 스킬, 마케팅, 이직, 출근길 지식 등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꿀팁을 카테고리별로 잘 담았죠. 그뿐만 아니라 물론 회사 밖 홀로서기, 태테크, 마음 다스리기 등의 멘탈 관리까지 해준답니다. 특히 퍼블리 속 고민해결소는 익명 속 이야기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같은 존재죠. 최근엔 MZ세대에게 최적화된 커리어 SNS로 젊은 직장인들의 랜선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경험을 나눕니다 폴인

폴인은 변화의 앞단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마케터, 디자이너, 벤처캐피털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커리어와 삶의 성장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만나 영감을 주는 글을 제공합니다. 폴인에는 커리어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800여 명의 '링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장 전문가인 링커와 멤버가 만나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지면으로 담은 종이신문 '폴인페이퍼'도 함께 발행하고 있으니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질감을 통해 영감을 얻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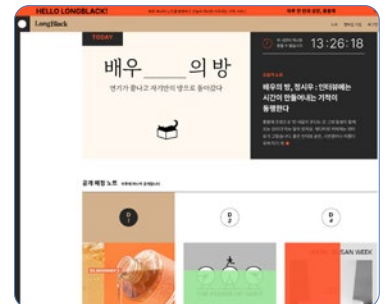


롱블랙

24시간 한정 콘텐츠의 매력 속으로! 롱블랙

요즘 가장 떠오르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중 하나인 롱블랙은 업로드 24시간이 지나면 읽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부담 없이 몰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처럼 단 24시간 동안만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콘텐츠가 하루에 한 개씩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이러한 시간 제한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선택권이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워하는 일명 '넷플릭스 증후군'이 일상인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롱블랙은 직장인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www.longblack.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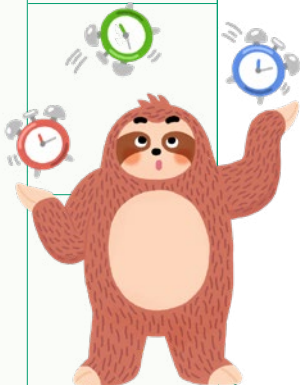
채널 moel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이번 8월호에서 소개할 정책은 고대한뉴스의 '가사근로자법 시행 소식'과 정책 알람의 '달라지는 실업인정방식'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요즘 맞벌이 부부, 1인가구들이 많아지며 점점 늘어나는 가사 서비스!
고대한 뉴스 시즌4에서 가사근로자법 시행 소식과 함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요건, 기관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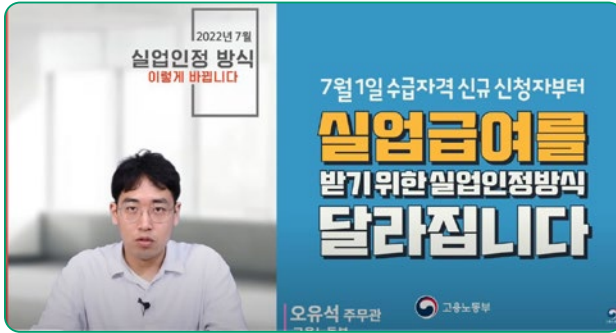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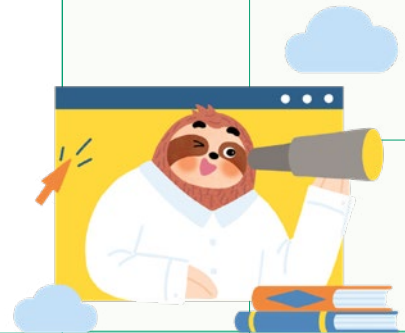
아직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 좋아요와 👉 구독신청, 🔔 알람신청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달라지는 실업인정방식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인정방식을 오유석 주무관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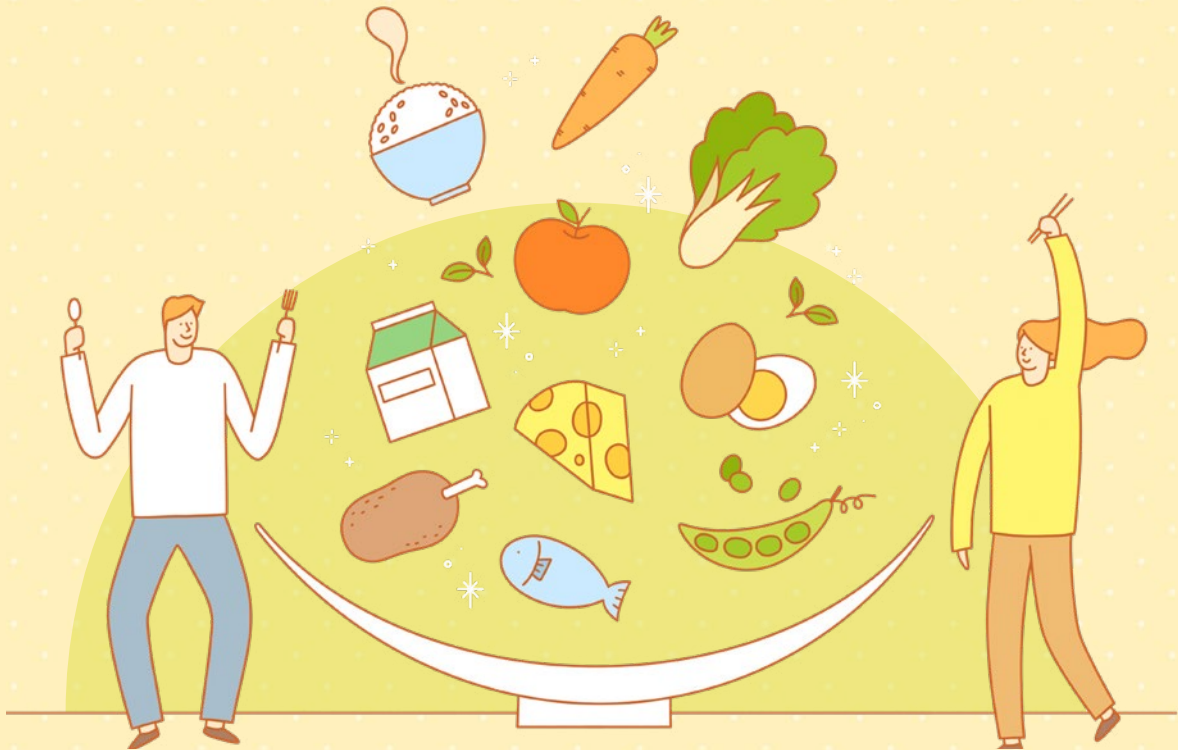


NEW 실업인정방식 인터넷 신청방법!

2022년 하반기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인터넷 신청방법도 변화가 있는데요. 2022 하반기 온라인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하는 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이흥민 주무관이 완벽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누구나 손 쉽게 할 수 있는 음식물 덜어먹기 챌린지!



2019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1만 40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해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지구를 위한 길이 됩니다.

8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8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8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8월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일스타그램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리모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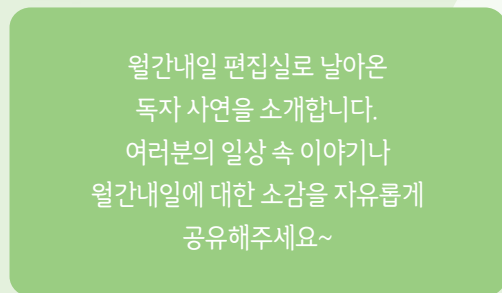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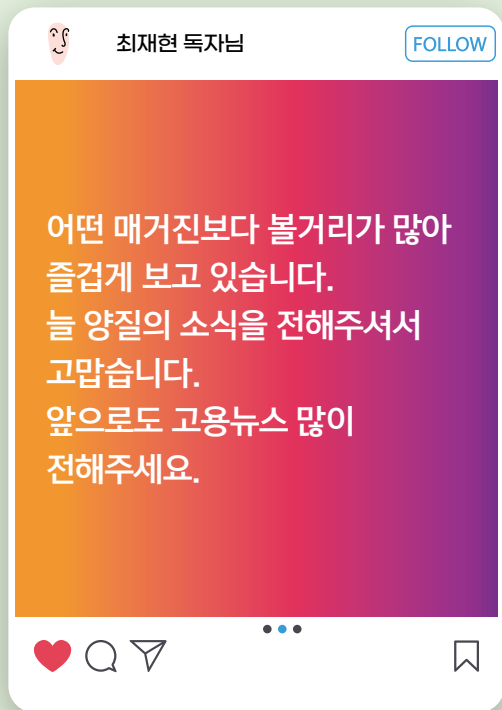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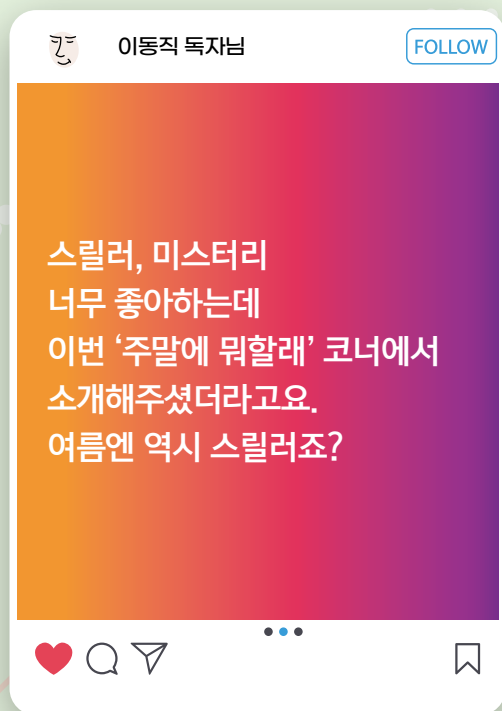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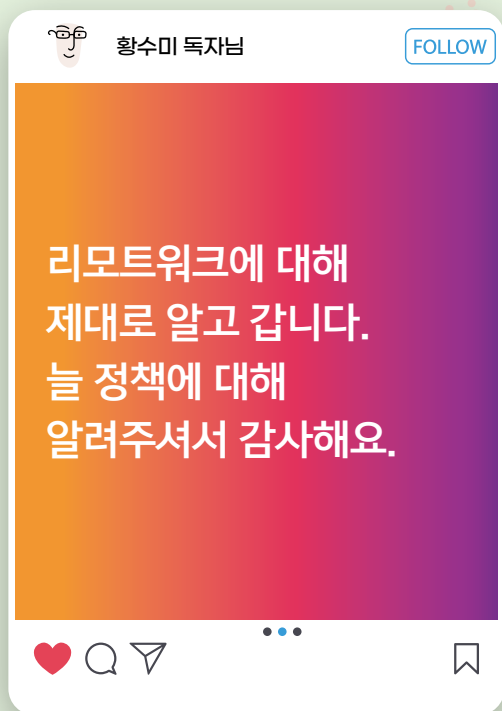
고용뉴스

주말에 뭐할래

REVIEW



8월호 그린리추얼
음식물 덜어먹기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고용노동부 <월간내일> 이벤트 초성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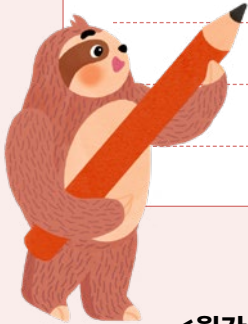
<월간내일> 8월호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초성을 맞춰주세요.

??

ㅈ	ㄴ	ㅇ	ㅈ	ㄹ	ㅈ	ㅇ
---	---	---	---	---	---	---

✓ 이벤트 참여방법

1. **트렌드캐치업 콘텐츠**를 열심히 읽는다.
2. **웹진(www.labor21.kr)**으로 접속해 **이벤트 응모하기**를 눌러 **정답**을 남긴다.



<월간내일>을 읽은 소감, 기대평 등도 남겨주면 당첨 확률이 Up! Up!
추첨을 통해 20명께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8월 3일~8월 16일 / **당첨자발표:** 9월 1일 개별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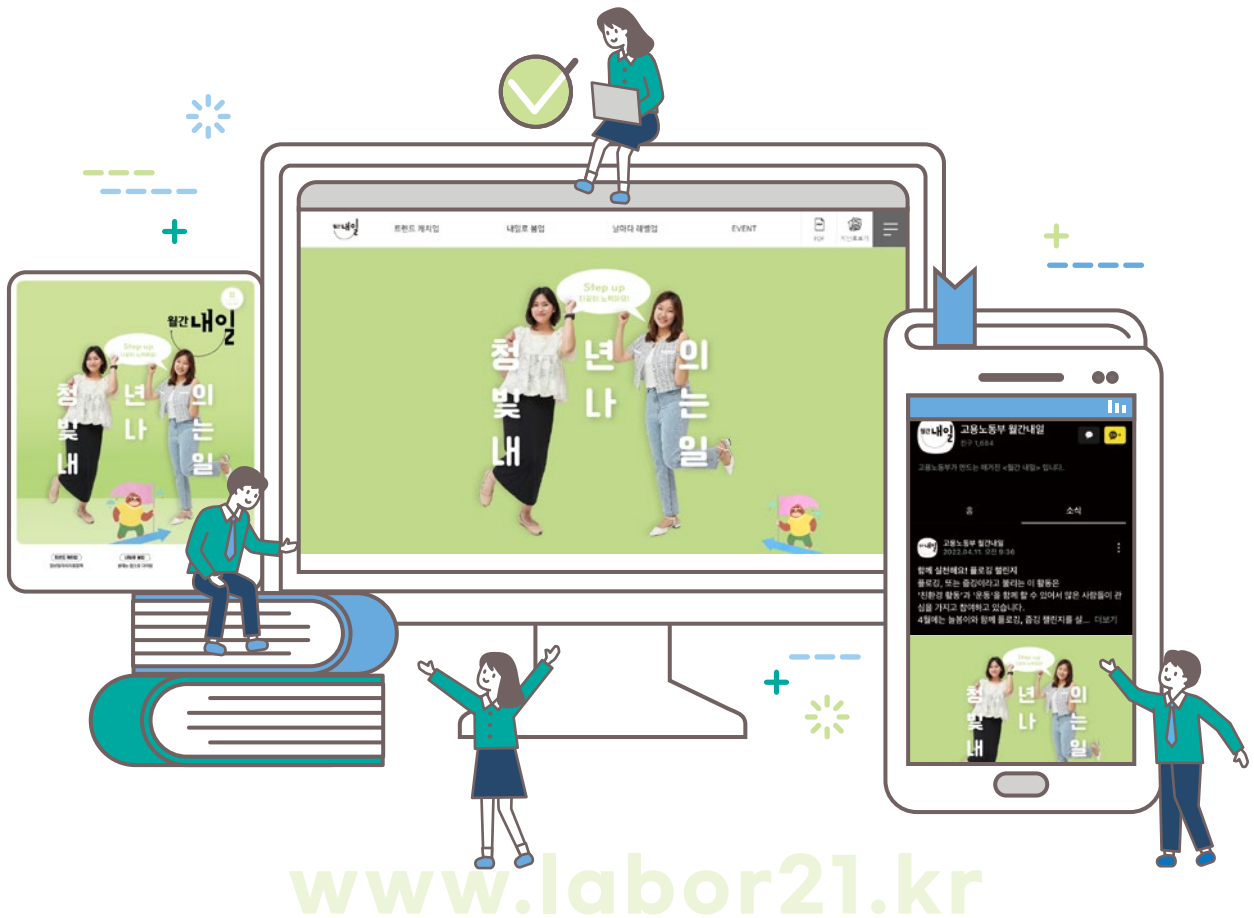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7월 이벤트 당첨자(*당첨자는 가나다 순)

강태균(9853)	구영주(6899)	권현숙(1471)	김가영(3125)	김득순(5928)	김민정(3941)	김영훈(5187)
김혜정(2635)	손인숙(1568)	민선주(6809)	박다인(1222)	양창엽(4251)	이봄(4471)	이은경(7411)
조향원(6499)	정준호(9717)	장지현(3310)	장효선(2883)	최영수(8709)	한영재(8552)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① 인쇄 잡지로 만나기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②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③ 카톡 플친으로 만나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